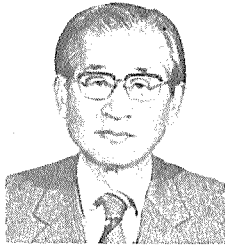


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김 명 호
(연세대보건대학원)

근래에 와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을 분명히 느낀다. 국민소득이 3,000불에 가까워졌고 따라서 의식주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김으로써 “평안하게 건강히 살아보자”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자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더 나아가서 얻은 지식을 지키겠다는, 즉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태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태도의 조성이나 잘못된 태도로부터 옳은 태도로 바뀌는 일은 건강행동이나 건강한 일상생활로 실천되어야 하고 따라서 실천을 전제로 하는 태도의 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의 경우나 우리 주변을 볼 때 많은 사람이 건강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끝나거나 한걸음 더 나가서 건강지식이나 정보를 얻어, 이것이 바로 유익한 것이니 실천해 볼까 하고 생각하거나 느끼는데서 (태도의 조성) 머무는 경우를 흔히본다. 다만 보건교육은 실천에 이르러야만 우리의 건강의 증진이 더 나가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건교육은 보건의 행정수단 중에서도 보건관계 법규의 집행이나, 보건봉사보다 더욱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발전하여 새롭게 출발한 단체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주관으로 최근에 창설된 한국보건교육학회 주최 보건교육 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은 여러모로 뜻이 있고 유익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장기보건교육 정책구상, 사회보건 단체의 홍보활동, 보건 관계법규 검토 및 개발 방향이란 세

밈거름이 되었다.

홍보 전략개발 세미나를 마치고

가지 주제와 지역사회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교육활동의 중요성, 국민보건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기관단체의 기능진단 및 홍보기능활성화 방향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보건교육은 학술면이나, 연구면 그리고 행정면이나 조직면에서 약한 실정에 놓여 있다. 필요한줄 알면서도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보건교육이다. 우리나라 보건교육은 벌써 30여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교육분야는 독립하여 발전해 왔다는 것보다는 보건사업의 각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발전해 왔다. 즉 그 구조적인 성격때문에 발전이 부진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보건교육에 관한 개발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경하할 일일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자극적이며 밈거름이 되는 행사라고 본다. 더욱이나 정부에서 앞으로 보건교육의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그간 보건관계 홍보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소개된 것은 단순한 홍보활동의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교육 즉 구체적으로 홍보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력히 시사해 주었다.

바야흐로 세계는 기원 2000년까지 모든 사람이 건강히 살아야 하겠다는 대슬로건을 목표로 거대한 건강대행진을 하고 있는 오늘날 이와같은 목표는 보건교육이 작은 개인위생의 개선을 위할뿐 아니라, 지역사회보건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보건정책 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기왕에 건협과같은 조직기구면이나 활동기능면에서 성숙된 기관을 위시한 사회보건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이나 역할이 크게 중요한 것은 물론, 여기서 보건교육학회가 할 일 역시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 보건교육학회는 1982년에 창립되었지만 국제보건교육학회에서 이사과 개발기술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 국민이 살아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탄생한 보건교육학회는 틀림없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